

2022년 7월에 드리는 아마존 떼페 선교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1:11)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어느덧 아마존은 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강 수위가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인디오 마을 지교회의 밀기둥까지 차오른 강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떼페 선교지의 기온은 매일 4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습도까지 겹쳐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복음을 향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동안 함께 사역하던 평신도 사역자 부부인 베드로와 아나가 다시 막내 아들이 있는 마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런 사임으로 교회가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역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나우스 한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 출신 전도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젊은 전도사 부부는 전문 사역자로 교회에서 청빙을 하였습니다. 내년 안식년을 맞아 교회를 한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청년들과도 잘 융화를 하며 말씀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름이 호벨라니와 자이네입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존은 강에는 무장한 해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작은 배들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밀림에 세운 인디오 마을 지교회에 들어가는 길목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세 명이 살해를 당하고 화물선이 약탈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선교지 배로 지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운데 인디오 마을 사역자인 빅톨과 하우 시네이스를 여객선을 통해 지교회에 보냈습니다. 여객선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며 배가 커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고 빅톨과 하우 시네이스는 인디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빅톨과 하우 시네이스가 사역을 잘 마치고 선교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빅톨 사역 가운데 성경 번역을 위한 파우피슈나 인디오 마을 작은 학교 교장인 시쿠를 만나 번역 작업에 함께 할 것을 권유했는데 시쿠가 저희의 번역하고 있는 마지하 쿨리나 인디오 부족의 언어인 아라와 어 번역 작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번역 작업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마치고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디오 마을 원로인 시쿠가 사도행전을 번역해 주기로 해서 8월이 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라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미루어왔던 주일학교를 2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공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서는 성경 읽기와 함께 기도를 하며 아마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청소년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디오 마을에 있는 세 지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해는 저나 아내가 많이 힘든 한 해 같습니다. 몸이 회복이 되지 않고 수시로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낍니다. 올 해로 아마존 선교를 감당한지 1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지 지역에 들어와 사역을 하며 제대로 휴가다운 휴가를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살면서 가족이 함께 휴가를 보내며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 때문에 저희 가족이 특히 아내가 탈진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인 하람이는 신학을 공부하며 사역자로서 상파울로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동역자님들과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아마존에서

김영균, 김윤정 선교사 올림

아마존 떼페 선교지를 위한 기도제목

1. 아마존 주루아 강 줄기의 꾸마루 지역 인디오 마을의 마지하 쿨리나 부족들이 사는 척박하고 소외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2. 떼페 생명수 장로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하여 아마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아마존 떼페 선교지에 계속 영적인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4. 선교사 가정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5. 마지하 쿨리나 부족 인디오 언어로 신약성경 번역 작업이 잘 진행되기를
6. 아마존 강 해적들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새로운 전도사 가족

빅틀 인디오 마을 사역



주일학교

생일잔치